

주민이 만들고 함께 누리는 공동체 문화

진안군, 20년 넘게 키워온 마을공동체 농어촌기본소득 토대로... 지역 활력 원동력 자리매김

진안군은 농어촌기본소득 선정을 위한 주민 참여 릴레이 캠페인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20여 년간 마을만들기로 다져온 강점을 살려 마을공동체를 토대로 기본소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방소멸과 인구감소가 전국 농촌의 공통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진안군은 20여 년 전부터 주민 주도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며 공동체 역량을 꾸준히 키워왔다.



진안군은 농어촌기본소득 선정을 위한 주민 참여 릴레이 캠페인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20여 년간 마을만들기로 다져온 강점을 살려 마을공동체를 토대로 기본소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사진은 두원마을소풍.

2002년 전국 최초로 추진한 그린리더 사업을 시작으로 주민들은 스스로 마을을 가꾸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며, 공동체를 성장시키는 경험을 축적해 왔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한 마을 환경 개선을 넘어 주민이 지역 발전의 주체로 참여하는 문화로 이어졌고, 오늘날 진안군 곳곳에서 다양한 결실을 맺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진안읍 외사양마을의 자치연금이다. 외사양마을은 농촌 체험휴양마을 운영 수익을 활용해 주민들에게 월 5만 원의 자치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동향면 봉곡마을은 공동 복지 활동의 수익을 햇빛발전소 건립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삼가짜마을은 공동급식을 통해 주민 돌봄을 실천하고 있다.

진안읍 공동마을 역시 태양광 발전 수익을 마을 운영에 활용하며 주민 주도의 자립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한편 지난 5월 31일 '촌스런 마을여행' 팸투어가 군 일원에서 펼쳐지고 있다. 참가자들은 동향면과 진안읍, 성수면을 오가며 주민들과 함께 마을을 둘러보고 농촌의 일상을 체험했다.

주민들은 직접 마을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방문객을 맞이하며 지역의 가치를 전달했다. 이는 20년 넘게 이어진 진안군 마을공동체의 현재로 주민

들은 직접 마을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방문객을 맞이하며 지역의 가치를 전달했다.

진안군 공동체의 강점은 수익을 만들고 나누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공동체 활동은 자연스럽게 돌봄과 복지로 이어지며 지역사회의 안전망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

기본소득이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공동체 기반이 필수적인 만큼, 진안군의 마을공동체는 농어촌기본소득의 든든한 토대가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기후위기 적응대책 '매우우수'

장수군, 탄소중립·온실가스 감축 등 정책 성과 입증

장수군은 '제1차 장수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5~2034)'과 '제3차 장수군 기후위기 적응대책(2024~2028)' 2025년도 추진 실적 점검 결과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고 9일 밝혔다.

먼저 '제1차 장수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추진실적 점검 결과에서는 총 6,432t CO₂e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달성했다. 이는 2025년 누적 감축목표량인 5,620t CO₂e 대비 11.4%에 해당하는 성과로, 목표치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CO₂e는 다양한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해당하는 값으로 환산한 단위이다.

부문별 감축효과를 살펴보면 건물 부문이 47.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흡수원 부문 34.1%, 농축수산 부문 9.8% 순으로 나타났다. /장수=고관호 기자

추진과제 달성도를 보면 총 22개 과제 가운데 13개 과제가 목표를 달성했으며, 6개 과제는 정상 추진 중이다. 지역 과제는 1건에 그쳤고, 2개 과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점검에서는 물관리, 산림·생태계, 재난·재해, 농축업, 건강 등 5개 부문 24개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평가 결과 준비단계 28.3점, 이행단계 39.3점, 성과부문 25점, 가점 1점을 합산한 종합점수 93.6점을 기록해 최고 수준인 '매우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장수군은 물관리 3개 사업, 산림·생태계 6개 사업, 재난·재해 3개 사업, 농축업 5개 사업, 건강 7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강화하고 주민 안전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정책 실행력을 높였다.

무주군, 신혼부부·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무주군이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9일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민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에 대해 연 최대 150만 원, 대출금리 연 최대 3%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다.

지원 대상은 무주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이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가구, 청년은 만 18세부터 39세가

지의 미혼자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여야 한다.

모집 규모는 신혼부부 5세대, 청년 4세대 등 총 9세대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유사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11일부터 18일까지 무주군청 2층 인구행력과 청년정책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와 제출 서류는 무주군청 누리집 알림마당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주=손흥기 기자

'진안홍삼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성황리 개최

진안군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2026년 진안홍삼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진안군체육회 주최, (사)한국유소년축구클럽연맹 주관)'를 진안공설운동장과 용담, 상진, 정천면 체련공원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10, U-11, U-12 등 총 9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되었으며, 선수들은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치며 선의의 경기를 펼쳤다. 대회 결과 종합별로 구미LM(U-8,진

안리그), 진주시민축구단(U-8,홍삼리그), 풍영FC(U-9,진안리그), UK FC(U-9,홍삼리그), 헤이데이FC(U-9,8인제), 마산FC블랙(U-10,진안리그), 마산FC핑크(U-10,홍삼리그), 광주신화유소년(U-11,진안리그), 애플리드(U-11,홍삼리그), 남원거점(U-12,2종 리그), JK 풋볼(U-12,스토브리그) 팀이 우승을 차지했으며, 모범적인 스포츠 정신을 보여준 진안 유소년FC와 성주 유소년 팀이 페어플레이상을 수상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자원봉사센터, '온정 나르는 행복밥차' 운영

(사)무주군자원봉사센터(이사장 이강우)가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관내 취약계층과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이동급식차량을 활용한 '온정을 나르는 행복밥차' 운영에 본격 나섰다.

장 양혜연)가 후원하는 이번 사업은 고령화와 소외감으로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읍·면 어르신 및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점심과 문화공연을 제공함으로써 이웃 간의 정을 나누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따뜻한 점심 식사 배식



과 지역봉사단 중심의 다채로운 문화공연(송가라난타, 라인댄스, 주계음우회, 정은교팀 사회 등)으로 소외감을 덜어주고 있다. /무주=손흥기 기자

지역 소식통

장수군 기업상생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추진

장수군로컬JOB센터(센터장 주성덕)가 '2026년 장수군 기업상생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오는 7월 10일까지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용환경 개선사업 △교통비 장려금 지원사업으로 구성되며 지역 내 기업 6개소와 재직자 56명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고용환경 개선사업은 지역 내 기업의 기숙사, 화장실, 휴게공간 등 근로환경 시설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내 3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장수군로컬JOB센터를 통해 신규 채용이 이뤄진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 기업에는 최대 1,200만 원의 시설 개보수 비용이 지원된다.

또한 교통비 장려금 지원사업은 근로자의 출퇴근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지역 내 기업 재직 근로자에게 월 5만원씩 최대 5개월간 교통비를 지원한다.

특히 편도 출퇴근 거리가 5km 이상인 재직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만 34세 이하 제조·가공업체 재직자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어린이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앞장'

진안군은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관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14개소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매월 1회 정기적인 위생점검과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교 주변 업소를 대상으로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여 안전한 식품 구매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군은 아이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를 다각화하고, 안전한 먹거리 선택법과 올바른 위생관리의 중요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릴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열염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